

2. 여수 14연대의 반란

1) 여순사건의 발생

1948년 전반기의 순천·여수지역은 전라남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온건좌익과 그 동조세력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남로당의 영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1948년 5월 초에 광주의 4연대 1개 대대를 근간으로 하여 여수에 14연대가 창설되었는데, 이것이 여순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당시 전국 각 지역에서 벌어졌던 군과 경찰의 갈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던 군에는, 경찰에 반발하고 있던 사병들과 지창수를 비롯한 김지회·홍순석 등 좌익계의 하사관과 장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던 좌익 동조자들과 일반 범죄자들까지도 경찰의 추적을 피해 쉽게 입대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적대감정이 높을 수 있었다.

이러한 14연대의 좌익세력들은 10월 들어 동요하고 있었다.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11연대장 박진경 중령의 암살을 계기로 미군정은 숙군작업을 시작하여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 진행해오고 있었다. 이는 여순사건 직전 14연대에도 과급되어 이미 전 14연대장 오동기 소령도 혁명의용 군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다.

숙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 김지회·지창수·홍순석 등의 좌익세력들은 대단히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14연대의 하사관과 사병들은 여유가 있을 때마다 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10월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모임은 더욱 빈번해지면서, 그대로 숙군대상이 되기보다는 집단탈영 등을 통해 목숨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집단행동을 할 때 여기에 동조할 수 있는 동조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가 불안한 요인이었다. 또 집단행동을 할 때 다른 지역의 군인들이 얼마나 가담해줄 것인지도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좌익계열 인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남로당 전남도당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15일 육군총사령부는 14연대장 박승훈 중령에게 제주도에 파견할 1개 대대를 조속히 편성하여 대기하라는 작전명령을 내렸다. 연대참모부는 즉시 작업을 개시하여 이튿날까지 1개 대대의 편성을 마쳤다. 14연대에는 미군의 신식무기와 풍부한 탄약·폭탄이 지급되어 있었으며, 무기고에는 반납해야 할 3,000여 정의 구식무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제주도로 파견할 1개 대대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14연대에서 문제를 드러낸 다수의 병사들과 숙군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짐작되는 병사들이 많이 포함되었으나, 지창수와 장락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편성작업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지만 연대본부의 인사담당 선임하사관이었던 지창수는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며, 이것은 곧바로 좌익성향의 하사관과 병사들에게 알려졌다. 지창수는 10월 16일 밤 남로당과 연결되어 있거나 이승만정권에 불만을 품고 있던 하사관그룹을 긴급히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들의 논의에서 제시된 방법은 대체로 3가지로 정리되었다. 첫째로 일단 제주도까지 간 다음 제주도의 반란군과 합류하는 것, 둘째는 출동을 거부하고 연대 내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 마지막으로 제주도로 출동하다가 해상에서 선상반란을 일으켜 북으로 향하는 것 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제주에서 반란에 합류하는 것은, 제주도가 좁은 섬이라는 불리한 점도 있지만 다른 부대로 확산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자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연대 내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남로당 중앙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하며, 선상반란은 성공 가능성이 크지만 단지 자신들의 도피 이상의 의미를 찾기가 힘들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논의로 밤새도록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상당수의 참가자들이 선상반란을 찬성함에 따라 대강은 결론이 난 셈이었다.

육군총사령부의 작전은 비밀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주도 출동예정일이 19일이라는 것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지창수는 남로당 전남도당의 연락책임자와 연결하여 선상반란의 계획을 밝히고 도당의 긴급지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은 경찰의 탄압으로 거의 와해된 상태에 있었고 결국은 도당까지 보고되지 못함으로써 지창수 중심의 14연대 좌익세력들의 단독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48년 10월 19일 아침 7시에 우체국을 통한 일반전보로 “LST는 19일 20시 출항하라. 제주 경비사령관 김상겸 대령에게 통보필”이라는 내용의 전보가 14연대장 박승훈 중령에게 전달되었다. 비밀을 요하는 작전명령이 일반전보로 전달됨으로써 14연대장은 비밀이 새어나갔을 것을 염려하여 출항시간을 2시간을 늦추어 저녁 10시로 확정하였다. 14연대장은 오전부터 출동부대의 군장검사를 시작하였다. 저녁 무렵에야 군장검사를 마친 출동부대 병사들은 부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여수항구로 이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반란의 주축세력이 되는 하사관그룹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창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남로당 전남도당과 연결을 갖지 못한 지창수는 선상봉기를 포기하고 연대 내의 반란으로 애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9시 50분 출항 직전에 세 발의 총성과 비상나팔을 신호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결국 14연대 중 1개 대대의 제주도 출동은 14연대의 좌익계 사병들에게 동족상잔을 위한 제주로의 파병이라는 문제와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는 양자택일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 육군정보국에서 자문역을 맡고 있던 전직 미군사고문단 단원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¹⁾

공산주의자들은 곤경에 빠졌다. 그들은 출동시간보다 앞서서 반란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든지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다. 일단 그들이 제주도로 가게 되면 연대병력이 재편될 것이고,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세포조직이 붕괴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장차 있을 유격대 투쟁에 필요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무기와 탄약을 탈취하여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이 결정을 내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상륙용 주정은 제주도로 파견할 제1대대병력을 승선시키고 있었다.

남로당 세력들이 반란을 모의하고 있는 시각에 장교들은 장교식당에서 출동장교들의 환송파티를 열고 있었고, 이는 저녁 7시경 끝났다. 출동부대 장교들은 대대본부에서 승선시간을 기다리며 쉬고 있었으며, 연대장과 부연대장 등은 부대의 승선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여수항으로 나가 있는 상태였다.

한편 지창수를 중심으로 한 반란주도 하사관그룹들은 지창수의 인사계사무실에 모여 최종적으로 반란논의를 하고 있었고, 여기서 지창수는 이미 계획해둔 상황을 알려주었다. 중심적 하사관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주지시키고 자신의 위치로 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준비과정에서 중심적인 인물은 지창수였고, 김지희나 홍순석의 활동은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 이러한 발발과정 중, 김지희 등의 남로당 장교그룹은 전혀 반란에 대한 모의와 준비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음에²⁾ 반해 김계유 등은 장교그룹과 하사관그룹간에는 역할 분담이 있었다는 주장이³⁾ 상반되고 있다. 역할분담론의 입장은 사건의 발발과 여수의 뒷수습은 지창수가 책임을 맡으며, 순천과 전국으로의 확산은 장교그룹에서 담당하도록 함에 따라 사건이 순천으로 확산될 때도 지창수는 순천으로의 동원부대에 가담하지 않고 신월리 14연대 본부에 남아 여수상황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제주로 출동하는 제1대대의 사병들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군장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여수에 잔류하는 부대는 출동부대의 뒤처리와 휴대할 도시락을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이윽고 9시 50분에 비상나팔 소리가 울리자 연병장에는 출동부대와 잔류부대의 전 대원 2,700여 명의 장병들이 집결하였다. 출

1) 존 메릴,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과학과 사상, 1988, 198쪽.

2) 이태, 『허순병란』 상·하, 청산, 1994.

3) 김계유, 『1948년 여순봉기』, 역사비평』 15호, 1991.

동부대는 출발이 한 시간 앞당겨진 것으로 생각하고 연병장에 모여 총기의 지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지창수가 갑자기 연단으로 뛰어 올라가 “지금 경찰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경찰을 타도하자. 우리는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을 반대한다. 우리는 조국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원한다. 지금 조선인민군이 남조선 해방을 위해 38선을 넘어 남진 중에 있다. 우리는 북상하는 인민해방군으로서 행동한다.”는 선동을 하자 대부분의 사병들이 “옳소.” 하면서 찬성을 하였고, 이를 반대한 3명의 하사관은 즉석에서 사살되었다.

이로써 14연대 반란은 발발하였다. 이미 탄약고는 지창수의 명령에 따라 좌익계 하사관들에게 점령되었고, 실탄은 반란군들에게 최대한으로 지급되어 휴대하게 함으로써 반란은 폭발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반란군으로 변해버린 출동부대에 나머지 2개 대대도 합류하여 반란군은 2,500명으로 불어났고, 영내에서 반란이 성공하자 이미 연락을 받고 14연대 부근에 잠복하고 있던 수산학교 학생 23명이 합세하여 이른바 인민군의 편성을 끝마치고 자정 무렵 여수시로 진격해 들어갔다.

23명의 수산학교 학생들은 신월리에서 하숙하고 있던 학생들이었는데, 대부분 좌익계 조직이었던 민주학생동맹의 맹원들로서 가끔 14연대에 놀러와 사병들과 자주 어울렸다. 그러던 중 14연대의 반란이 터지자 이들은 여수시 지리에 밝은 이점을 이용하여 반란군들을 인도, 삼시간에 여수시를 점령하는 데 일조하였다.

2) 여순사건의 전개

반란에 성공한 지창수는 스스로 인민해방군의 연대장에 취임하고 하사관 동조세력들을 대대장·중대장·소대장·분대장으로 임명하여 반란군의 조직을 정비하였다. 곧이어 책임지역을 나누어 영내에 숨어 있는 장교들을 수색하여 군의관 등 이용가치가 있는 장교는 우선 창고에 감금하고 기타 다른 장교들은 사살했다. 이때 사살된 장교는 20여 명이였다. 차량에 분승하여 여수시로 향한 반란군은 가장 먼저 여수시의 입구에 있던 봉산과출소를 습격하여 경찰들을 학살한 후 20일 새벽 여수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시내에 진입한 후 이미 연락이 취해진 여수 시내의 좌익단체 및 학생단체 600여 명에게 무기를 지급하였다.

반란군들의 첫째 표적은 경찰서였다. 반란군은 가장 먼저 새벽 3시경 여수경찰서를 점령하였다. 19일 저녁 11시 30분경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정보를 입수한 고인수 여수경찰서장은 경찰관 200여 명으로 방어작전을 폈지만 수적인 면이나 장비에서 반란군과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M 1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반란군을 99식 소총이나 칼빈소총으로 무장한 경찰로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20일 새벽 3시 30분경에 이미 경찰서는 수십 구의 경찰시체만을 남기고 반란군에게 점령되었다. 반란군이 유치장을 열자 50여 명의 수감자들은 그대로 반란군과 합류하였고, 이들은 더욱 기세를 부리며 경찰관만 보면 무자비하게 잔인한 보복을 자행하였다. 14연대의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던 신식무기와 구식무기 3,000여정이 여수 시내의 반란동조세력에게 지급되었다.

새벽 5시경 여수시에 밀어닥친 반란군은 좌익단체의 인도에 따라 군청·시청·관공서·은행·신문사 등 중요기관을 서둘러 점령하였다. 9시경 여수의 전 시가지는 반란군의 수중에 들어갔고, 반란군들은 좌익 청년단체들의 선도로 피신한 경찰·우익요인·우익청년단 등을 색출하기 시작했다. 체포된 경찰관과 각 기관장·우익단체원·지방유지 등은 반동분자로 몰려 여수경찰서 뒤뜰에 결박되었고, 그 중 반란군에 대해 반감이 심했던 극우적인 인사들이 즉결처분되었다. 거리에는 인공기가 게양되기 시작하여 오후에는 전 시가지가 인공기의 물결을 이루었다. 경찰서와 군청에는 오전 10시경부터 보안서와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반란을 일으킨 14연대 병력은 역할을 분담하여 일부는 여수 시내를 점령하는 일을 담당하고, 반란군의 주력부대는 반란의 확산을 담당하여 순천으로 출발하였다.

3) 순천으로의 확산

여수를 점령한 반란군 가운데 약 700명은 오전 8시 30분 순천행 통근열차로 출발하고 1,300여 명은 각종 차량으로 순천으로 향했다. 20일 새벽 1시경 여수의 교환원에게 14연대의 반란소식을 들은 순천경

찰은, 양계원 경찰서장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순천으로 들어오는 철도를 절단하고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전략에 따라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다. 그러나 철도를 절단하는 일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8관구 경찰청이 철도절단 승인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애초의 방어계획을 수정하여 순천경찰은 경찰서원 전원을 소집하여 여수와 순천의 관문을 차단하기 위해 해룡지서를 사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침에 여수 쪽에서 척후병을 세우면서 천천히 올라오는 반란군대열을 보고는,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철수하고 말았다.

순천으로 철수한 순천경찰은 인접한 별교·보성·고흥·장흥·광양·구례·곡성군 경찰병력의 지원을 받아 약 500명의 경찰력으로 반란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한편 순천의 기관장들과 유지들은 여수에서 군인들의 봉기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처음 듣고 당시 빈번하게 발생하던 군경간의 단순한 충돌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지방유지들을 소집하여 군·관·민의 친선을 도모하는 주연준비를 논의하고 있었다.⁴⁾ 그러나 반란의 자세한 소식이 전해지자 단순 충돌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혼비백산하였다고 한다.

당시 순천에는 경찰력과 더불어 순천경비임무를 띠고 파견된 14연대 소속의 2개 중대(선임 중대장 홍순석 중위)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오전 9시 30분경 반란군 700여 명이 기차로 순천역에 도착하자 순천을 경비 중이던 2개 중대가 반란군에 합류하였다.

순천에 파견된 2개 중대의 선임중대장이었던 홍순석 중위는 자신이 남로당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정보가 누설되어 숙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 여수에서 반란이 발발했다는 소식에 부대를 순천역 부근으로 이동시키고 여수에서 올라오는 반란군을 기다리다 반란군에 합세하였다. 홍순석도 김지회와 같이 하사관들이 주동이 된 반란모의에는 참여하지 못하다가 반란이 발생한 후에 참여하게 된다.

반란군이 순천역에 도착하였을 때 순천역을 지키고 있던 철도경찰은 혼비백산하여 이미 도망간 후였기 때문에 어떤 저항도 받지 않았다. 통근열차와 군용트럭으로 순천역에 도착한 반란군들은 홍순석의 순천파견 2개 중대와 합류하여 순천의 각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반란군에 밀린 순천경찰 500여 명은 대부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피신했으며, 일부는 전투 중 사망하고 나머지 약 50명은 경찰서로 후퇴하였다. 광주를 출발하여 오전 10시경에 도착한 4연대 지원병력도 경찰과 합동작전을 전개하여 동천을 사이에 두고 반란군과 대치하고 있었으나, 전투를 벌이지 않고 있다 얼마 후 반란군에 합세함에 따라 반란군의 기세는 크게 오름에 반해 경찰 등의 방어대는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광주에서 진압차 내려온 4연대의 1개 중대병력도 “군인끼리 싸울 수 없다. 상관의 전투명령이 없다.”면서 반란군에 합세하고 말았다. 당시 군인들에게 국가의 보존이라는 측면보다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더 중요한 상황이었고, 그만큼 당시의 이승만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순천은 오후 3시경 반란군에게 완전 점령되었다. 순천시의 좌익세력들도 반란군이 순천에 도착하자 반란군에게 무기를 지급받고, 함께 경찰·우익요인·청년단원들을 습격하거나 우익인사들을 적발·처분하는 데 앞장섰다.⁵⁾

4) 인근지역으로의 확산

순천을 점령한 반란군은 3개 부대로 재편성하여 주력 1,000여 명은 구례·곡성·남원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학구 쪽으로 진격해갔고, 일부는 광주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별교·보성·화순 방면으로, 나머지 일부는 경상도로 진출하기 위해 광양·하동 방면으로 진격해갔다. 20일 저녁 19시 45분에 남원 방

4) 김석학 외, 『황복 30년』, 287쪽.

5) 김석학 외, 위의 책, 124~125쪽.

면으로 진출한 반란군은 순천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학구에서 3연대 1개 대대와 전주에서 출동한 진압부대와 조우하였다. 20일 밤과 21일 새벽 광주 방향으로 진출한 반란군은 광주에서 진압차 출동한 4연대 2개 중대병력을 보성 인근에서 매복·기습하였으며, 하동 방향으로 진출한 반란군은 광양 동쪽 8km 지점에서 21일 아침에 15연대 1개 대대병력을 매복·기습하였다.

여순사건은 지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즉, 반란군이 진출한 중간지점에 위치한 군에서는 반란군이 도착하기 전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이 미리 도주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다른 지역 토착좌익들은 군중들을 선동해서 경찰서를 공격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일 저녁과 21일 사이 남원에서는 반란군의 일부가 도착하자마자 폭동이 일어났으며, 구례군에서는 반란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토착좌익들에게 여러 명의 경찰이 피살되었고, 경찰지서는 점령되었다. 보성군은 토착좌익들이 경찰서를 공격하여 반란군에게 무혈점령되었고 경찰과 우익인사들은 피신하였다. 또한 사건 파급과정에서 별교와 조성 사이에 있는 새재터널을 경비하는 제14연대 병력 그리고 보성에 주둔하고 있던 제4연대 1개 중대병력이 반란군에 합류하였다. 고흥에서는 순천에서 진입해온 반란군과 그에 동조한 지방민들이 함께 고흥읍을 점령하고, 그에 저항하는 경찰관 7명과 주민 6명을 총살 혹은 타살하였다.⁶⁾

6) 『황주신보』 1948. 10. 31.